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http://www.motie.go.kr
2018년 3월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22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18. 3. 22(목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
담당과장	김대자 과장(044-203-4510)	담 당 자	전성우 사무관(044-203-4504)

5대 신산업, R&D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·개선

-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출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「산업기술 R&D 혁신방안(3.13)」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, **3월 23일 "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"를 출범**한다.

* 5대 신산업: 전기·자율차, IoT가전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·헬스, 반도체·디스플레이
*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구성: 산업융합옴부즈만(규제총괄), R&D전략기획단 MD 4명(규제영향분석), 산업기술정책관(정책지원) 등 총 6명으로 구성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·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,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,

○ 이번 "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" 출범을 통해,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,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"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"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(1차 회의, 3.23(금)예정)를 통해 **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·서비스의 연구개발→생산 → 판매 → 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, 분석**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

○ 신제품·서비스의 **연구개발(R&D) → 실증 → 시장진입 → 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하여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**할 계획이다.

○ 동시에 환경·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(R&D)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,

○ **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'찾아가는 옴부즈만' 활동**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,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옴부즈만 권한 강화 추진 : 관계부처 '협조 요청' → '개선 권고'로 개정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중요한데,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&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"이며, "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성우 사무관(☎ 044-203-45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3-22 10:55:42